

있으며 위에 一段의 괴임층이 五枚石式으로 짜여 있어 그 위에 上基를 받고 있다. 面石은 四石으로 짜였는데 兩隅柱가 刻出되었고 甲石은 一枚石으로서 낮은 副椽이 있으며 上面에는 一段의 넓직한 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塔身은 四枚石으로 造立하였고 一層屋蓋부터는 各部 모두 一石씩이다. 各塔身에는 兩隅柱가 整然한데 二層부터는 南面만을 中央을 陰刻하여 마치 矩形的 龕室을 마련한 것 같은 印象을 주고 있어 注目되었다. 各屋蓋石은 받침이 三段式인데 五層만은 角形 二段이다. 一層부터 四層까지의 三段屋蓋받침은 上. 下段은 角形이나 中段은 四分圓처럼 모(角)를 없앴다. 初層塔身에는 괴임이 없으나 二層부터 五層까지는 괴임石 一枚를 갖고 있으므로 그 뒤 屋身을 받고 있는 屋蓋上面에는 받침이 刻出되지 않았다. 屋蓋 落水面은 위에서는 急한 듯하나 점차 平坦하게 내려옴으로 傾斜度가 없는 듯하다. 轉角에 反轉이 있고 上端에 二孔 下端에 一孔의 小圓孔은 風聲이 있었던 痕跡이라 하겠다. 落水面의 四合角이 두드러짐과 基壇部 등 石塔의 造營樣式은 潭陽邑內의 五層石塔과 同系라 할 것이다. 五層屋蓋頂上에는 四角孔의 擦柱孔(深九cm)이 있으며 落下된 露盤에는 貫通된 擦柱孔이 있다. 年代는 高麗로 推定되며 屋蓋 및 塔身 基壇部의 樣式이 特異하고 彫刻手法이 整然한데서 優作이라 하겠다. 洞民들의 말에 依하거나 또는 石塔 自體에서 도 볼 수 있는 바이지만 이 石塔은 倒壞되었거나 解體된 바 없는 原形의 完全한 塔으로서 保存策을 세웠으면 좋겠다. 實測值는(cm) : 下基高 上基高 六二 初層塔身高八八·二 二層塔身高三三·二 三層塔身高二八·五 甲石一邊長一七二 幅一〇五·五 幅八九·三 幅七四·四 四層塔身高二二·五 五層塔身高一七·八 初層屋蓋長一八〇 三層屋蓋長 幅五八·五 幅五一·二 幅一五七·四 幅一三七·三 五層屋蓋長九五·五이다.

二、女亭里石佛立像

兼面支亭里 上林洞(谷)에서 뒷산쪽으로 올라가는 小路邊에 倒置되어 있다. 洞民(金鎮峯氏 六四歲)의 말에 依하면 이 곳에서 멀지않는 西쪽 앞고개 넘어 佛堂골에서 約四十年前에 金佛이 出土되었다는 바 當時警察에서 가지고 간 뒤 알길 없었다고 한다. 이 石佛이 있는 一帶는 상박골寺址라

하며 이 立像도 어느 때 부터인지는 모르나 아주 오래前부터 現地에 放置되었는데 前記 金氏가 어렸을 때는 머리위에 圓形의 갓(冠)이 있었다고 한다. 板石에 陽刻하였으나 圓刻佛이며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었으나 破損되었고 相好는 圓滿하나 鼻部와 口唇에 磨損이 크다. 兩耳는 짧은 편이며 白毫와 三道가 있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을 걸쳐 옆으로 펼쳐져 흘렀으며 무릎 위로는 橢圓을 그리면서 내켜졌고 가슴에는 裙衣의 衣褶이 뚜렷하다. 手印은 左手를 臍前에 올렸고 右手는 들어 胸前에서 母·中指를 잡고 있다. 現在는 무릎 以下가 破失되었으며 光背도 있었던 痕跡이 뚜렷하다. 各部에 磨損이 있으나 그래도 彫刻手法이 流麗하다. 年代는 麗代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는(cm) 現高一二 肩幅 四八 全厚 三二 陽刻厚 一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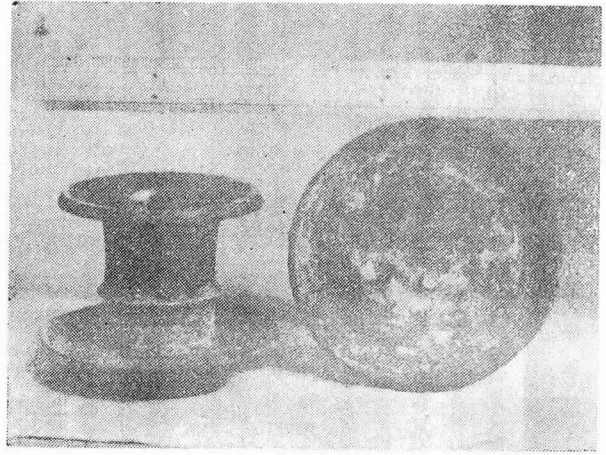
三、觀音寺金銅觀音坐像頭部

이곳 法堂火災로 因하여 全體가 破佛이 되고 鎔解되었는데 頭部의 殘片이 同寺에 保存되어 있다. 頭頂에는 寶冠의 附着部가 남아 있고 안쪽 寶髮과 白毫孔 그리고 細長한 左眼部가 보일 뿐이다. 下部를 보면 內孔한데 그 안에는 진흙이 들어 있다. 이렇게 完全破佛이 되었기 때문에 이 佛像은 指定文化財에서 除外되었다. 實測值는(cm) 高三〇 五內孔徑七 三·五이다.

昌寧述亭里 東三層石塔의 舍利具

金 周 泰

慶尙南道 昌寧郡 昌寧面 述亭里 所在 國寶第三四號 昌寧述亭里 東三層石塔 補修工事を 六五年十二月二十四日 着工한 바 同日 午後四時頃 三層塔身 中央의 方形舍利孔에서 (一邊〇·五五尺 깊이〇·四五尺) 靑銅蓋型舍利容器(高〇·三尺 上徑〇·三尺 內徑〇·一六尺 同手徑徑〇·四尺) 유리製 淡黃色 舍利瓶(高〇·一尺) 一個 유리製 圓形小品(徑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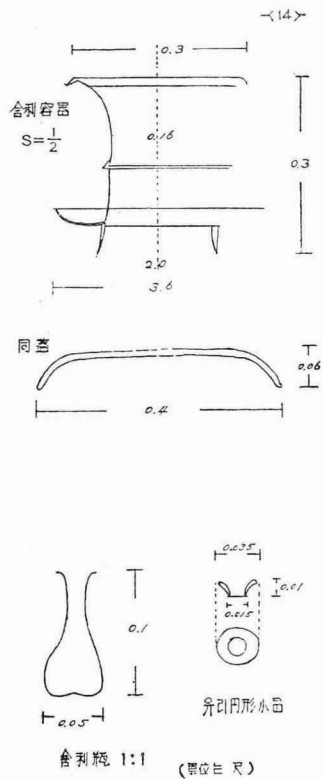


三五尺 淡黃色) 一個
五色구슬類 九個(직
徑一分 정도의 大小)
가 發見 되었다.

이들은 舍利孔에
安置 되었는데 舍利
瓶은 圓筒內에 있었
고 유리구슬과 同圓
形小品은 下盤돌레
에 있었는데 이들은
土塵에 파묻혀 있었
다. 靑銅蓋는 上面에
서 이 圓形蓋形容器
를 덮고 있었다. 유
리舍利瓶內에는 卵
白色舍利 七粒이 있
어 後에 塔再築時에
다시 새로운 容器에
넣어 原位置에 安置

되었다. 舍利等の 發見狀況으로 보아 塔을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이 石塔에서 또 하나의 注目點으로서는 基壇部의 下臺底石 周圍에 돌림돌을 놓았던 一部의 石材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는 西北隅의 것으로 元來는 四方周圍에 둘러져 있었던 것이 確實하다고 보겠다. 周圍外廓에 碇(高〇·一五尺 幅〇·六尺)이 있어 물이 빠지도록 홈(〇·一尺)이 파져 있으며 部材는 여러 枚로 놓여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塔의 相輪部는 尙실 되었으며 直徑〇·四五尺 깊이 〇·四五尺의 擦柱孔만이 남아 있었다. 塔身部는 初層屋身等 各 屋蓋石이 모두 一石이며 基壇部의 上臺甲石은 四枚로 되어 있고 上臺中石도 四枚로 되어 있다. 下臺中石은 內部中心에 心礎石(撐柱石) 없이 雜石만을 채우고

中石을 두르고 있다. 下臺甲石은 五枚로 되어 있으며 下臺中石과 下臺底石이 같이 四枚로 되어 있어 全體의 規模도 크지만 各部材의 돌도 크게 다루었다 하겠다.



八公山 觀音庵

文 明 大

大邱市內에서 桐華寺로 가는 길을 따라 四km쯤 가면 합승중점인 不老洞이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約二km쯤 가면 북쪽이 斷丘로 되어 東西로 달리는 巖山(一名 香山)이 있다. 이 巖山의 북쪽 斷崖에는 우리나라 天然紀念物 第一호인 側栢나무들이 바위틈을 비집고 가지를 아래로 처뜨리고 서식하고 있고 그 아래로 맑은 냇물이 감돌아 佳景을 보인다. 이 벼랑의 동쪽 끝의 약간 평평한 곳에 아담한 佛宇가 東向하여 세워졌는데 이것을 觀音庵이라고 한다. 이 庵子는 義相祖師 創建의 古刹이라고 하나 古建物址의 흔적이 전연 없고 現建物은 高宗時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觀音殿안에 石觀音菩薩像 一軀가 있고 建物보다 一段 높은 곳에 小石塔이 있어 注目된다.

一、觀音菩薩像

方形臺座위에 東向한 正面立像으로 현재 臺座를 제외한 全身部에 두